

1

- 2018년부터 한일 관계는 강제 징용공에 대한 양국 정부 간의 시선 차이, 한일 레이더 갈등, 위안부 합의의 사실상 파기 등의 영향으로 인하여 최악의 해를 보냈다.
- 2019년 7월 2일 일본 정부는 전략물자 수출 절차 우대국인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했고, 8월 2일에 법에 수록되어 효력을 발휘하기 시작했다.
- 일본은 한국의 주력 산업인 반도체에 필수적인 포토리지스트, 액체 불화수소,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등의 한국수출을 어렵게 하여 한국 경제에 타격을 가하기 위한 것이다.
- 이에 한국인들의 반일 감정 격화로 불매운동이 일어났으며, 대마도, 홋카이도 등 일본 비수도권 지역에 한국인들의 발길이 끊겼고, 한일간 민간 교류도 크게 감소하였다. 이후 한일관계는 더욱 악화되었고, 대립관계는 점점이 없는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 이러한 상황에서도 민간에서는 한일간의 친선우호관계를 회복하려는 움직임이 보이고 있다.
- 2017년 10월 31일, 조선통신사에 관한 기록 [17세기~19세기 한일 간 평화구축과 문화교류의 역사]이 한국과 일본 공동으로 유네스코 세계기록문화유산으로 등재되었다.
- 한일양국이 6여 년 동안 성실교린의 정신으로 함께 추진해온 노력이 마침내 결실을 맺게 된 것이다.

2

- 조선통신사에 관한 기록은, 1607년부터 1811년까지, 일본 에도막부의 초청으로 12회에 걸쳐, 조선국에서 일본국으로 파견되었던 외교사절단에 관한 자료를 총칭하는 것이다. 이 자료는 역사적인 경위로 인해 한국과 일본에 소재하고 있다.
- 조선통신사는 16세기 말 일본의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조선국을 침략한 이후 단절된 국교를 회복하고, 양국의 평화적인 관계구축 및 유지에 크게 공헌했다.
- 조선통신사에 관한 기록은 외교기록, 여정기록, 문화교류의 기록으로 구성된 종합자산이며, 조선통신사의 왕래로 두 나라의 국민은 증오와 오해를 풀고 상호이해를 넓혀, 외교뿐만이 아니라 학술, 예술, 산업, 문화 등의 다양한 분야에 있어서 활발한 교류의 성과를 낼 수 있었다.
- 이 기록에는 비참한 전쟁을 경험한 양국이 평화로운 시대를 구축하고 유지해 가는 방법과 지혜가 응축되어 있으며, 성신교린을 공통의 교류 이념으로 대등한 입장에서 상대를 존중하는 이민족간의 교류가 구현되어 있다. 그 결과, 양국은 물론 동아시아지역에도 정치적 안정이 이루어졌고, 안정적인 교역루트도 장기간 확보할 수 있었다.
- 따라서, 이 기록은 양국의 역사적 경험으로 증명된 평화적·지적 유산으로, 항구적인 평화공존관계와 타문화 존중을 지향해야 할 인류공통의 과제를 해결하는데 있어서 현저하고 보편적인 가치를 가진다.
- 이를 계기로 한일 양국간에는 해마다 조선통신사행렬 재현 축제 등 다양한 행사가 열리고 있다. 첨예한 정치적 갈등에도 불구하고 조선통신사축제는 날로 꼬여가는 한일간의 우호적 실타래를 풀 수 있는 한 가닥 희망이 되고 있다.

3



4



14강 _ 화합과 상생의 여정, 조선 통신사의 길



목차 CONTENTS

1. 조선통신사 개설
2. 통신사의 파견 배경과 목적
3. 통신사의 구성 및 파견절차
4. 통신사절단의 파견 노정
5. 통신사절의 한일문화교류 성과

5



14강 _ 화합과 상생의 여정, 조선 통신사의 길

조선통신사 개설

- 조선시대 조선 국왕의 명의로 일본의 막부장군(幕府將軍: 足利·徳川幕府 등)에게 보낸 공식적인 외교사절로 조선통신사라고도 한다.
- 1403년(태종 3), 조선이 명나라로부터 책봉을 받고, 그 이듬해 일본의 아시카가(足利義滿) 장군도 책봉을 받자, 중국·조선·일본 간에는 사대·교린의 외교관계가 성립되었다. 따라서 조선과 일본은 대등한 교린국이 되었고, 조선국왕과 막부장군은 양국의 최고권력자로서 상호 간에 사절을 파견했다.
- 조선 국왕이 막부장군(일본국왕으로 칭함)에게 보내는 사절을 통신사, 막부장군이 조선 국왕에게 보내는 사절을 일본 국왕사(日本國王使)라고 하였다.
- 조선 사절의 일본 파견이 18회에 달하였고, 일본국왕사의 조선 파견이 71회에 달한다. 그러나 조선 국왕이 파견한 사절이 모두 통신사의 호칭을 갖지는 않았으며, 이 중 막부 장군(일본 통치자)에게 간 것은 8회에 그쳤다.

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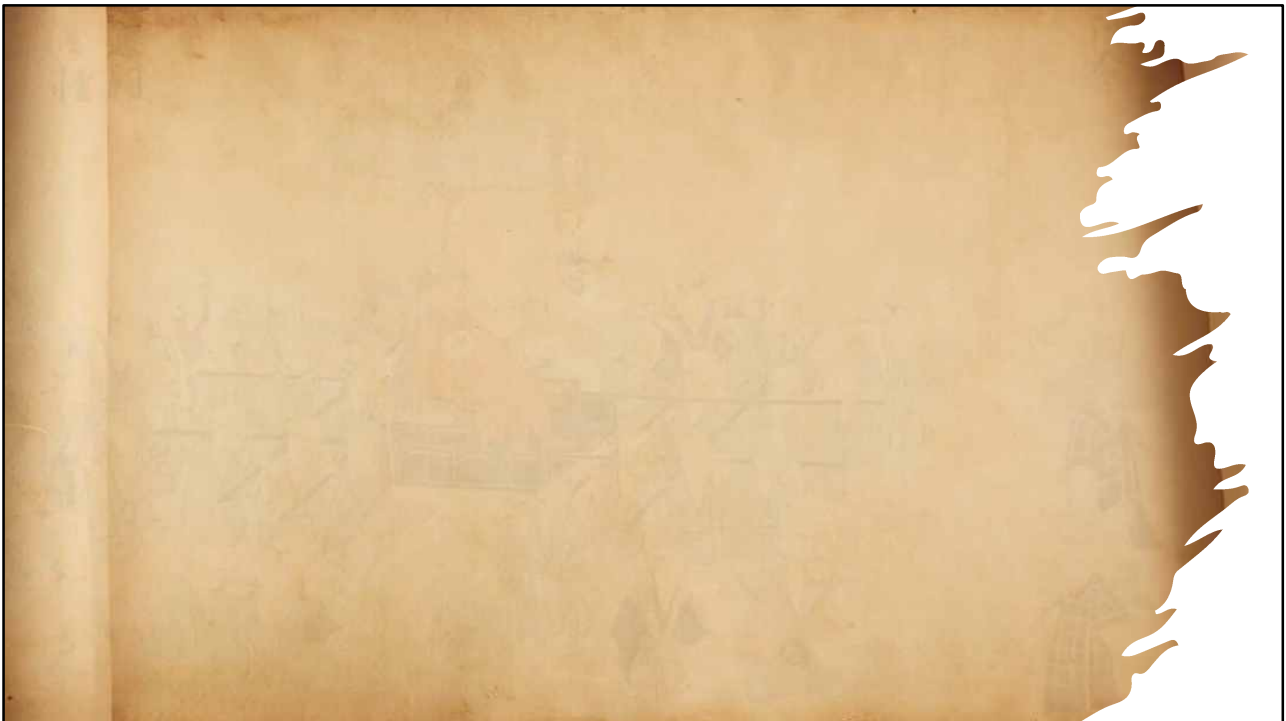


14강 _ 화합과 상생의 여정, 조선 통신사의 길

조선통신사 개설

- 조선이 파견한 통신사는 다음과 같은 조건과 목적을 갖추어야 한다.
 1. 첫째, 조선 국왕으로부터 일본 장군(국왕)에게 파견된다.
 2. 둘째, 일본 국왕의 길흉(吉凶) 또는 양국간의 긴급한 문제를 해결하는 목적을 갖는다.
 3. 셋째, 조선 국왕이 일본 국왕(막부장군)에게 보내는 국서(國書)와 예단(禮單)을 지참한다.
 4. 넷째, 사절단은 중앙의 고위관리인 삼사(三使) 이하로 편성한다.
 5. 다섯째, 국왕사의 칭호도 갖는다.
- 일본의 막부장군에게 파견한 사절단에 통신사의 호칭을 처음 쓴 것은 고려시대 1375년 무로마치[室町] 막부의 장군에게 왜구 금지를 요청하는 사절을 파견한 것이 시초였다. [고려열전_정몽주전]
- 조선시대에 들어와 통신사의 명칭이 처음 나타난 것은 1413년(태종 13)이었으나, 중도에서 정사 박분(朴賁)의 발병으로 중지되었다. 그 후 통신사의 명칭을 가지고 일본에 파견된 사행은 1428년(세종 10) 정사 박서생(朴瑞生) 이하의 사절단으로, 파견 목적은 장군습직의 축하와 전장군에 대한 치제(致祭)였다.
- 이후 통신사의 파견은 정례화되어 조·일 양국간에 우호교린의 상징으로 조선시대 전기간에 걸쳐 총 20회(조선 전기 8회, 조선 후기 12회)가 시행되었다.

7



8



14강 _ 화합과 상생의 여정, 조선 통신사의 길

통신사의 파견 배경과 목적

- 조선 전기에는 일본관계의 큰 관심사는 왜구 문제였다. 조선에서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막부장군에게 통신사를 파견했다. 즉, 왜구 금압의 요청과 우호관계 유지를 위한 장군 습직 축하 등 주로 정치·외교적인 목적이었다.
- 반면 조선 전기에 파견된 일본 국왕사는 교역이 주목적이었다. 동(銅)을 가져와 대신 생필품인 쌀·콩·목면을 구해가거나, 일본에서 선종(禪宗)이 크게 유행하자 조선의 대장경과 범종을 가져가는 경우도 있었다.
- 임진왜란 직후 통신사의 파견 목적은 전쟁상태 종결을 위한 강화교섭, 전쟁포로의 쇠환(刷還), 국정탐색, 막부장군의 습직 축하 등 주로 정치·외교적인 목적이 우선했다.
- 반면 조선 후기 일본으로부터 일본 국왕사의 조선파견은 금지되었다. 조선 전기 일본 국왕사의 상경로가 임란 시에 일본군의 침략로로 이용되는 등 피해가 심했고, 조선에서는 일본 국왕사의 상경을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 그로 인해 일본국왕사의 파견은 중단되었고, 대신 막부장군에 관한 일은 차왜(差倭/대마도에서 수시로 파견한 임시사절)가 대신하게 되었다.

9



14강 _ 화합과 상생의 여정, 조선 통신사의 길

통신사의 파견 배경과 목적

- 통신사가 본격적으로 파견되기 시작한 것은 1636년 부터였다. 배경에는 동아시아 국제정세의 변동에 주된 원인이 있다. 명·청의 세력 교체와 그에 따른 중화질서(中華秩序)의 붕괴는 조·일 양국에 새로운 연대감과 탈중화(脫中華)의 교린관계를 구축하게 했다.
- 따라서 조선 후기의 통신사 파견은 청을 중심으로 한 책봉체제를 배제하고, 조·일 양국의 독자적인 대등외교의 수립이라는 외교사적인 의미가 있다.
- 이러한 국제환경 속에서 통신사 파견의 목적과 서계·예단·여정 등 내용과 형식이 정례화 되었다. 그리고 대마도와의 실질적인 통교를 위하여 문위행(問慰行), 팔송사[무역사절], 및 차왜(差倭)제도를 확립하였다.
- 통신사 파견의 정례화 후, 파견 목적은 표면적으로는 대부분이 장군습직의 축하였다. 그러나 내면에는 때마다 다른 이유와 목적이 있었다.
- 1636년은 명·청의 세력 교체에 따른 일본과의 연대감 확립, 국서개작사건 이후 대마도주의 옹호와 국정탐색, 1643년은 청나라의 압력에 대한 견제와 겸대(兼帶)의 제도 이후 늘어나는 무역량의 축소 교섭, 일본의 해금정책(海禁政策)과 도원생변(島原生變)에 대한 국정탐색이었다.

10



14장 _ 화합과 상생의 여정, 조선 통신사의 길

통신사의 파견 배경과 목적

- 1655년의 통신사는 일본이 '가도조선' (假道朝鮮)한다는 정보를 확인하기 위함이었으며, 1682년은 대마도와 무역통제를 위한 7개 조의 조시약정(朝市約定)이었다.
- 1711년의 통신사는 아라이 하쿠세키[新井白石]의 외교의례 개정에 대한 국가의 체면 유지와 일본과의 지속적인 우호관계가 목적이었다. 1719년은 외교의례 복귀에 대한 조선의 외교방침 전달 및 대마도에서의 '표인 차왜(漂人差倭)'의 조약체결 등 구체적인 양국의 현안문제가 있었다.
- 18세기에 들어와 대륙의 정세가 안정되자 통신사 파견도 외교적인 현안보다는 의례적이 되었다. 1748년과 1764년의 통신사는 장군습직 축하와 교린관계 확인이 주목적이었다.
- 19세기에 들어와 통신사 파견의 외교적인 의미가 상실되면서, 1811년 통신사는 여정을 바꾸어 대마도에서 국서를 교환하는 의례적인 '역지통신(易地通信)'으로 막을 내리며, 이후 정례화된 통신사는 사라졌다.
- 19세기 중반, 동아시아세계가 서구세력의 위협을 받게 되면서부터 조·일 양국은 통신사를 통한 우호교린보다는 서로 상반된 대외인식에 의해 서구세력에 대처해 나가게 되었고, 일본에 의한 일방적인 교린체제의 파괴는 통신사의 폐결과 함께 교린관계의 종말을 가져왔다.

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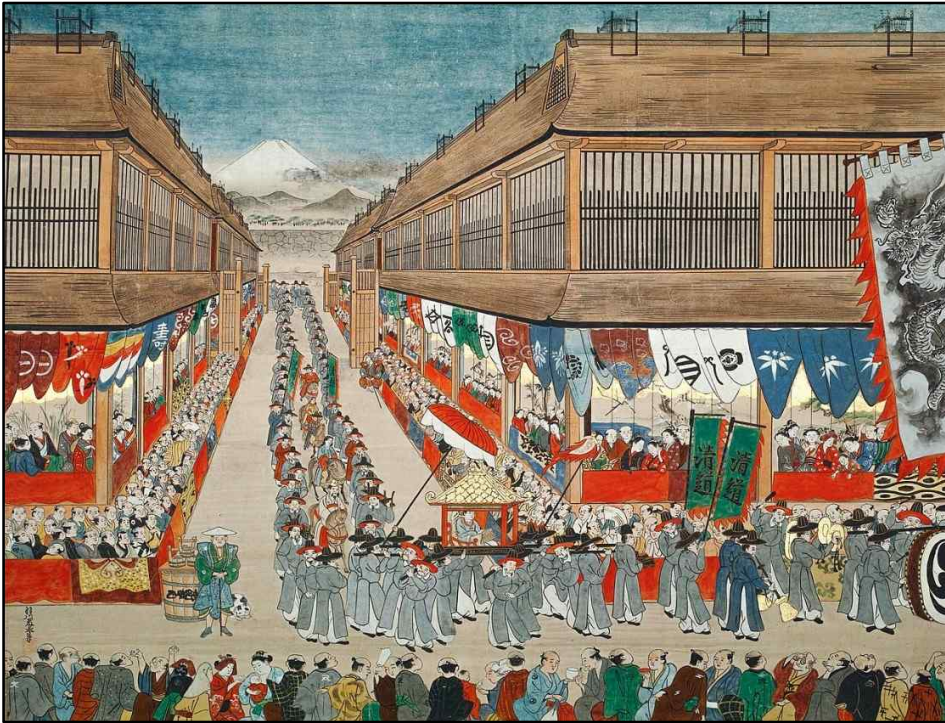


14장 _ 화합과 상생의 여정, 조선 통신사의 길

임란 이후 조선통신사 파견 경위

시기	정사(대표)	총인원	파견 목적
1614, 광해군 9년	오윤겸	428	오사카평전 일본통합 축하
1624, 인조 2년	정립	460	이에야쓰 장군 취임
1636, 인조 14년	임광	478	태평의 장수 축하
1643, 인조 14년	윤순지	477	이에쓰나 탄생
1655, 효종 6년	조형	485	이에미쓰 서거 조문, 이에쓰나 장군 취임축하
1682, 숙종 8년	오윤겸	473	이에쓰나 서거조문, 쓰나요시 장군 취임축하
1711, 숙종 37년	조태억	500	이에노부 장군 취임축하
1719, 숙종 45년	홍치중	475	요시무네 장군 취임축하
1748, 영조 24년	홍계희	477	이에시게 장군 취임축하
1764, 영조 40년	조업	477	이에하루 장군 취임축하
1811, 순조 11년	김이교	358	이에나리 장군 취임축하

12



조선통신사내조도

고베시립박물관수장
神戸市立博物館収蔵

13

카노야스노부 [狩野安信]
『朝鮮通信使』 1655년
대영박물관 소장



14



15



16



일광 동조궁
조선종

17



일광 동조궁
조선종

18



일광 동조궁
조선중에 새겨진 명문

19

일광산(日光山)의 도량은 도소다이곤건[東照大權現 덕천가강의 시호(諡號)]을 위해 세워졌다. 다이곤건[大權現]은 끝없는 공덕(功德)을 쌓았기 때문에 끝없이 섬기려는 것이다. [건축]결구의 웅장함은 일찍이 세상에 없었고, 전통을 계승한 효(孝)는 조상의 업적을 더욱 빛냈다. 우리 왕께서 듣고 기뻐하여 범종(梵鐘)을 주조해 영산(靈山)에 삼보(三寶 부처·불법·승려)를 공양하게 하고, 신하 식(植)에게 명(命)하여 종에 명문(銘文 종에 새기는 글)을 쓰게 했다.

훌륭한 공적이 크게 드러내서	丕顯英烈
비로소 영진(靈眞 수양하여 득도함)하였네	肇闡靈眞
사당을 세우고	玄都式廓
보배로운 종을 설치하네	寶鐘斯陳
공양하는 일에 참여하여	參修勝緣
명복(冥福)을 비네.	資薦冥福
고래처럼 소리치고 사자처럼 포효하여	鯨音獅吼
어리석은 자 깨우치고 마귀 도망가네	昏覺魔伏
종은 중기(重器 중요한 보물)가 아니라	非器之重
오직 효자의 모범이 되네.	唯孝之則
용천(天龍 불법의 수호신)이 보호하니	龍天是護
큰 복(福)을 받으리라.	鴻祚偕極

승정 임오년(1642) 10월 일 조선국 예조참판 이식(李植) 지음. 행(行) 사직(司直) 오준(吳竣) 씀

日光山鐘銘并序。日光道場。爲東照大權現設也。大權現有無量功德。合有無量崇奉。結構之雄。世未曾有。繼述之孝益彰先烈。我王聞而歡喜。爲鑄法鐘。以補靈山三寶之供。仍命臣植叙而銘之。銘曰丕顯英烈。肇闡靈眞。玄都式廓。寶鐘斯陳。參修勝緣。資薦冥福。鯨音獅吼。昏覺魔伏。非器之重。唯孝之則。龍天是護。鴻祚偕極。崇禎壬午十月日。朝鮮國禮曹參判李植撰。行司直吳竣書

1643년, 통신사행때
일본에 건너간 조선중

20



14강 _ 화합과 상생의 여정, 조선 통신사의 길

통신사의 구성 및 파견 절차

- 조선통신사는 정사(正使)·부사(副使)·종사관(從事官)의 삼사(三使) 이하, 화원(畫員)·의원(醫院)·역관(譯官)·악사(樂師) 등 총 400명에서 500명에 이르는 대규모 사절단으로 구성되었다. 조선의 수도 한양에서 출발하여 일본의 수도 에도(江戶)까지는 반년 이상이 소요되는 왕복 약 3,000km 여행을 수행했다.
- 통신사의 파견절차는 먼저 일본의 새로운 막부장군의 승습이 결정되면, 막부는 대마도주에게 명령하여 차왜(差倭)를 조선에 파견하여 그 사실을 알려 온다.
- 이어 일본이 통신사 파견을 요청하는 통신사청래차왜(通信使請來差倭)를 파견하고, 조선에서는 예조가 이 현안을 조정해 건의하고 논의를 거쳐 통신사 파견을 결정하여 왜관(倭館)에 알린다.
- 통신사 파견의 구체적인 내용이 협의되면, 예조에서는 이를 조정에서 의논한 뒤 통신사 일행이 구성된다.
- 통신사 일행이 한양을 출발하여 동래부에 도착하면 다시 대마도에서 파견된 신사영빙재판차왜(信使迎聘裁判差倭)의 인도를 받아 대마도에 도착한 뒤, 대마도주의 안내를 받아 일본 국내 에도(江戶)까지 왕복한다.
- 사행을 마치고 대마도로 돌아오면 그 곳에서 부산까지는 다시 대마도주가 임명하는 '신사송재판차왜(信使送裁判差倭)'가 이를 호행·안내한다.

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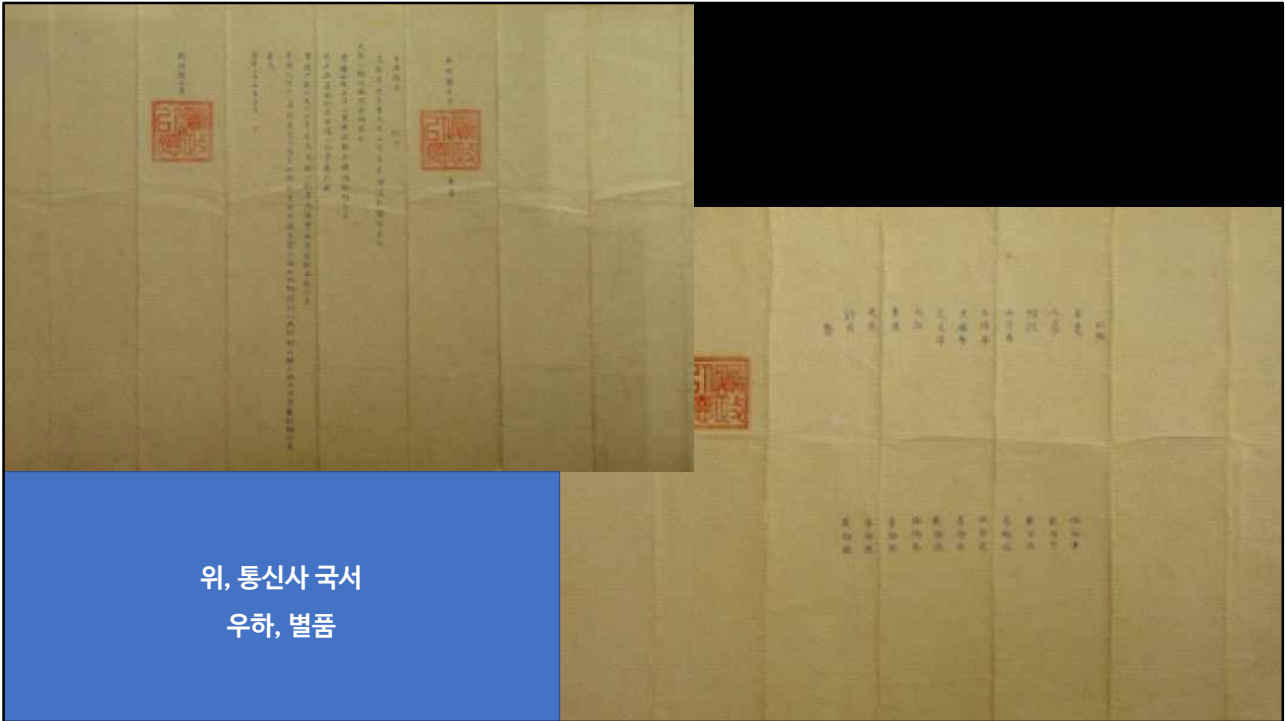


14강 _ 화합과 상생의 여정, 조선 통신사의 길

숙종 8년(1682년)의 통신사절단

- 1682년(숙종 8)에 구성된 통신사절단은 총인원이 577인에 달했다.
- 막부장군에게는 조선국왕의 명의로 된 국서(國書)가 작성되었고, 사절단은 공식외교문서인 서계와 별폭(別幅)을 지참했다. 국서는 규모나 격식의 형식을 반드시 지켰으며, 별폭은 줄 선물의 품목을 말한다.
- 서계(문서)에는 사절의 목적과 용건을 기재하고, 문서 끝이나 별지에 예물로 보내는 선물의 종류와 수량을 적어 완전한 문서로 작성했다. 별폭은 상대방의 지위에 따라 품목과 그 품목의 양이 달리 정하여졌다. 별폭은 선물내용이나 수량면에서 증여무역의 성격을 지니고 있었다.
- 별폭의 내용은 일본 국왕·약군(若君)·집정(執政) 이하 대마도봉행(對馬島奉行) 등의 처소에는 사신 사예단(私禮單)으로 인삼 49근, 호피 16장, 백저포 62필, 흑마포 109필, 황모필 202병, 진묵(眞墨) 360홀, 부용향 310지, 소은장도 5병, 석린(石鱗) 14근, 청심원 109환 등이 기록되었다.
- 통신사 일행이 타고 가는 배는 수군통제사영과 경상좌수사영에서 준비했다. 이 배는 사람이 타는 기선(騎船) 3척, 짐 싣는 복선(卜船) 3척 등 모두 6척으로 편성되었다. 정사·부사·종사관의 3사단(使團)으로 구성된 통신사 일행은 3선단(船團)으로 편성했다.

22



위, 통신사 국서
우하, 별품

23



조선통신사회권
대마역사민속박물관

24



25



26



14강 _ 화합과 상생의 여정, 조선 통신사의 길

통신사절단 파견 노정

- 통신사 일행이 한양을 출발하여 부산에 도착하는 데 2개월 정도가 소요되었다. 이들에게 처음에는 충주·안동·경주·부산의 4개 소에서 연향이 베풀어졌으나 후기에는 민폐 때문에 부산 한곳에서만 베풀어졌다.
- 이들은 부산에 도착하여 영가대(永嘉臺)에서 해신제(海神祭)를 지냈다. 해신제는 길일(吉日)을 택하여 통신사 일행이 부산에서 일본으로 떠나는 날에 『국조오례의(國朝五禮儀)』의 해독제(海瀆祭)에 준하여 거행되었다. 영가대 높은 곳에 제단을 마련하여 희생과 폐백(幣帛)을 차려 놓고 집사(執事)의 사회 아래 엄숙하게 진행되었다. [신유한(申維翰), 해유록(海游錄)]
- 부산의 영가대는 통신사 일행과 인연이 깊은 부산의 명승지로, 그들은 이곳에서 일본으로 떠나고 이곳으로 돌아왔다. 영가대에서 해신제를 지낸 통신사는 국서를 받들고 기선 3척과 복선 3척에 나누어 타고 출발하여 호위하는 대마선단에 선도되어 대마로 들어갔다.
- 임진왜란 뒤 1614년(광해군 6) 순찰사 권반(權盼)은 영가대 부근에 못을 파고 호수를 만들어 전함을 계류(繫留)하는 장소로 사용했는데, 그것은 임진왜란의 쓰라린 경험을 거울삼고자 한 시책이었다 한다.

27



14강 _ 화합과 상생의 여정, 조선 통신사의 길

통신사절단 파견 노정

- 대마도에서 도주의 연향을 받은 다음, 다시 관리의 안내를 받아 이키도(壹岐島)에서 후쿠오카를 거쳐 아카마세키[赤間關·下關]를 항로로 취하여 세토나이해를 거슬러 올라갔다.
- 이후 일본 각 번(지방 정부)의 향응과 호행을 받으면서 기다리고 있던 유자(儒者)·문인(文人)과의 필담창화(筆談唱和)를 하면서 해로를 따라 오사카[大阪]에 이른 뒤 다시 동·서본원사(東西本願寺)에 도착했다.
- 그 뒤 6척의 아국선과 몇 명의 경비요원만을 남겨둔 채 여러 다이묘[大名]들이 제공한 배를 타고 요도우라[淀浦]에 상륙한다.
- 이어 인마(人馬)로 갈아타고 육로로 교토로 향했다. 무로마치 막부 때에는 교토가 종점이었지만, 에도 막부 때에는 1617년을 제외하고는 모두 에도까지 갔다. 쿠사(草津)를 출발하여 1620년대 특별히 건설하였던 '조선인가도(朝鮮人街道)'를 지나 도카이도[東海道]를 지나갔다.
- 그 중도에는 배다리[船橋]가 있었는데, 1682년 통신사 일행은 이 길을 가면서 “다리를 놓는 데 쓰인 배가 무려 300척이나 되었다.” “열선(列船)의 비용과 철색운판의 비용이 수천여 금에 이르렀다.”라고 기술하고 있다..

28



29



30



14장 _ 화합과 상생의 여정, 조선 통신사의 길

통신사절단 파견 노정

- 오카자키[岡崎]에 도착한 후 막부에서 보낸 사자(使者: 問安使)의 출영을 받으면서 육로로 목적지인 에도에 들어갔다.
- 속사는 1682년 무렵부터 본원사로 하였으나 후에 동본원사(東本願寺)로 바꿨다. 통신사 일행이 통과하는 객사에서의 교류는 한시문·학술의 필담창화라고 하는 문화상의 교류가 성하였다. 그러나 이에 따른 화려하고 사치한 향응은 결국 일본의 재정을 압박하는 하나의 원인이 되기도 했다.
- 이에 대해 아라이 하쿠세키[新井白石/일본학자]는 이 상황을 비판하고 통신사 접대에 대한 제 규정의 시정을 시도하기도 하였다. 그가 제시한 시정안은 향응장소를 5개소만으로 한정하고, 다른 곳에서는 음식만을 제공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개혁안은 결국 한 번으로 끝나고 또다시 종전의 형태로 돌아가 호화로운 향응이 지속되었다.
- 에도에 체류하는 동안에 1636·1643·1655년에 파견된 통신사 일행들은 도쿠가와 이에야스 장군의 묘소[日光東照宮]의 참배를 강요받기도 하였다.

31



14장 _ 화합과 상생의 여정, 조선 통신사의 길

통신사절단 파견 노정

- 1636년부터는 막부의 요청에 의하여 곡마단(曲馬團)의 공연이 있었는데, 1680년부터는 이를 위하여 마상재(馬上才)의 파견이 항례화되었다.
- 막부로부터 길일이 택하여져 허락이 있으면 국서와 별폭을 건네주고 며칠 뒤 장군의 회답·별폭, 그리고 정사 이하에게 물품과 금은이 답례로 주어지고, 다시 대마도주와 함께 왔던 길을 거슬러 귀로에 올랐다.
- 귀국길에도 일본 각지의 제후들의 향응과 접대가 올 때와 마찬가지로 행해졌으며, 대마도로부터는 신사송재 판차왜가 동행하여 부산에 입항한 뒤 한양으로 돌아왔다.
- 통신사들의 왕래 일정에는 다소 차이가 있기는 하나 대개는 5개월에서 8개월이 소요되었다. 그러나 무더운 여름이나 엄동이 긴 노정기간에는 2년 여에 걸친 사행도 있었다.
- 1428년(세종 10) 장군습직 축하로부터 시작된 통신사는 1811년(순조 11) 대마도에서 국서를 교환하는 역지통신(易地通信)으로 변질되었고, 이것을 마지막으로 역사에서 사라졌다.

32



14강 _ 화합과 상생의 여정, 조선 통신사의 길

통신사절단의 한일문화교류 성과

- 통신사에 대한 일본인의 반응은 당시 정치인 뿐만 아니라 일반 무사를 비롯한 문인·목객·서민에 이르기까지 커다란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 통신사는 그들이 방문한 곳마다 서화·시문·글씨 등을 많이 남겼으며, 그것은 병풍·회권·판화 등의 형태로 만들어져 널리 유행되었다.
- 통신사를 맞이하는 일본의 풍경은 마치 축제와 같았다. 통신사 일행이 통과하는 객사에서는 수행원에게 한시와 글씨, 그림을 받기 위해 몰려든 군중이 인산인해를 이루었다.
- 한시문과 학술의 필담창화(筆談唱和)라는 문화상의 교류가 성행하였다. 일본인들에게는 조선의 유학과 의학 등 선진 문화를 접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 유학자들은 통신사들과 유학에 대해 필담을 나누기도 했다.
- 이처럼 통신사 일행은 조선과 일본의 학문과 문화 교류의 창을 열었다.
- 통신사를 통해 조선의 선진 문물이 일본에 전파되었으며, 양국은 교린에 입각한 상호 호혜의 관계를 유지할 수 있었다.

33



14강 _ 화합과 상생의 여정, 조선 통신사의 길

통신사절단의 한일문화교류 성과

- 통신사절단이 일본에 전해준 조선의 선진 문물은 실로 다양했다. 그 중에서도 의술, 그림(화가 교류), 마상재(馬上才) 등은 일본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다.
- 통신사들은 국내로 돌아와 일본에서 겪은 견문록을 남겼다. 그 대표적인 것은 신유한(申維翰)의 『해유록』, 강홍중(姜弘重)의 『동사록(東槎錄)』, 홍우재(洪禹載)의 『동사록』, 신숙주(申叔舟)의 『해동제국기(海東諸國記)』, 조엄(趙巖)의 『해사일기(海槎日記)』, 유상필(柳相弼)의 『동사록』, 조명채(曹命采)의 『봉사일본시문견록(奉使日本時聞見錄)』, 김세렴(金世濂)의 『해사록(海槎錄)』, 작자 미상의 『계미동사일기(癸未東槎日記)』, 남용익(南龍翼)의 『부상록(扶桑錄)』 등이 이에 해당된다.
- 이 기록들은 당시 통신사에 참여한 인물들이 일본에서 경험한 사실들을 일기형식으로 기록하여 남겨 놓은 것으로, 당시 문물교류를 파악하는데 귀중한 자료가 좋은 자료가 되고 된다.
- 이러한 측면에서 통신사는 일본과의 관계 유지라는 외교적인 의미 뿐만 아니라 학술·사상·기술·예술상의 문화교류라는 또 하나의 의미를 가진다.

34



馬上才圖

35

YTN science

**섬에 먹을 수 있는 풀뿌리가 있는데
무뿌리 같고 오이나 토란과도 같다**

조엄(1719~1777), 1763년 통신사로 일본에 갔을 때 대마도에서 고구마 종자를 가지고 와서 동래와 제주도에 재배하게 하여 최초로 구황작물로써 고구마 재배를 실현하였다.

36



조선통신사가 도착한 시모노세키시에서 재현된 조선통신사행차축제 (2018년)

37



조선통신사가 도착한 시모노세키시에 세워진 조선통신사상륙기념비 (2001년)

38



조선통신사가 도착한 시모노세키 항구에 설치된
조선통신사가 타고간 배의 달



한국사探
조선의 문화·외교 사절단

조선통신사역사관
부산광역시 동구 자성로

감사합니다